

‘고마진’ 패션·뷰티 편성 확대… 올해 영업이익 4배 상승 전망

〈전년대비〉

롯데홈쇼핑

연매출은 9350억, 소폭감소 예상
‘원소싱 멀티채널’ 전략도 통해
해외브랜드 ‘단독판권’ 차별화

롯데홈쇼핑이 올해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뷰티 등 고마진 상품군 위주로 방송을 편성하고 판매 채널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브랜드 발굴에도 속력을 내면서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롯데홈쇼핑의 연매출은 9350억원으로 전년 대

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고마진 패션·뷰티 품목의 채널 편성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 송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소싱 멀티채널’을 본격화한 것도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롯데홈쇼핑은 올해 2분기 패션 품목의 편성 시간을 전년보다 10% 늘린 후 주문건수 20%가 증가했다. 뷰티 상품은 신상품의 편성 시간을 80% 늘리며 주문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이탈리아 친환경 패션 브랜드 ‘우프웨어’와 프랑스의 ‘플로트’ 등

해외 단독 브랜드의 단독 판권을 잇달아 계약하면서 브랜드 차별화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 롯데홈쇼핑의 TV, 모바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원소싱 멀티채널’ 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롯데홈쇼핑은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이 2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매출은 4599억원으로 0.5% 감소했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지식재산권(IP),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기업 에이치피오와 합작법인 ‘디에디션 헬스’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처

음 내놓은 제품 ‘덴마크 단백질 이야기’는 출시 첫 날 3000세트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으며 매출 1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체 캐릭터 ‘벨리곰’ IP를 활용해 소비자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벨리곰을 이용한 IP 사업의 누적 매출은 약 200억원에 이른다. 지난 7월 유통업계 최초로 캐릭터 IP를 접목한 게임 ‘벨리곰 매치랜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고마진 패션·뷰티 상품을 지속 발굴하는 전략을 통해 향후 매출 확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롯데홈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은 11월 쇼핑 대전을 앞두고 여느 해보다도 빠른 겨울 아우터 행사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온 ‘얼리 윈터 페스타’ 내달 6일까지 아우터 할인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겨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홈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은 11월 쇼핑 대전을 앞두고 여느 해보다도 빠른 겨울 아우터 행사를 시작했다

고 30일 밝혔다. 롯데온은 내달 6일까지 ‘얼리 윈터 페스타’를 진행한다. 24년 F/W 신상품과 지난 시즌 베스트 아이템을 최대 20~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총 40억 물량이 준비됐다.

컬럼비아와 노스페이스, 아이더 브랜드의 다운자켓과 백팩, 슈즈를 단독 특가에 선보이며, 어그와 베어파우 브랜드의 겨울부츠와 슬리퍼도 최대 물량이 확보됐다. 연말 여행시즌을 앞두고 썬소나이트 레드 그룹 캐리어도 준비됐다. 온라인 전용 상품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과 카드결제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최빛나 기자

쿠팡 ‘스위트 숍’ “수능·빼빼로데이 먹거리 준비하세요”

쿠팡이 11월 수능·빼빼로데이 등 각종 기념일을 겨냥해 다양한 먹거리와 선물 상품 등을 선보이는 ‘스위트 숍(Sweet Shop)’을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대 반값 혜택과 함께 와우회원은 즉시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먼저 ‘11.11 데이’ 테마관에서 막대과자, 초콜릿, 사탕 등 쿠팡이 선별한 인기 스낵과 친구와 연인을 위한 선물 상품들을 내달 11일까지 선보인다. 대표상품으로 ▲빼빼로 럭키박스 기획세트 ▲빼빼로 샘플러 6종세트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등을 할인가에 만날 수 있다.

‘수능’ 테마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을 위한 먹거리와 핫팩, 도시락, 필기구 등 수능 응원 아이템을 내달 14일까지 만날 수 있다. 대표상품으로 ▲팁스 스텐 보온 도시락 ▲해피데이 핫팩 ▲상상앤드 행운의 포춘 초콜릿 등을 준비했다.

매일 1~2개 브랜드 상품을 단 하루 최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데이’는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서울 새로운 랜드마크… ‘명동스퀘어’ 1일 공개

신세계백, ‘신세계스퀘어’ 첫 선
‘디지털 사이니지’ 상시 운영키로

1963년, 대한민국 최초 백화점을 연 신세계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명동스퀘어의 시작을 알린다.

신세계는 내달 1일 오후 6시 명동 포스트타워 앞 광장에서 명동스퀘어 오픈을 알리는 ‘2024 Lights up SEOUL, KOREA’ 행사를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신세계는 농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공개하고 명동의 세계화에 앞장선다.

새로운 랜드마크의 오픈을 기념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일대도 연중 다채로운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연말 한시



신세계스퀘어 거대한 리본이 쓴 연말 문구.

/신세계스퀘어

적으로 운영했던 디지털 사이니지가 상시 운영되는 것.

먼저 서울의 연말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영상이 공개된다. 11월 1일, 신세계는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서 연

말이 주는 즐거움과 마법 같은 순간들을 선사하고자 ‘크리스마스의 순간들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

꿈 같은 밤하늘에 화려한 조명으로

/최빛나 기자

롯데백, 크리스마스 야경 명소에 도전

올해 테마 ‘윈더풀 쇼타임’
본점 중심 화려한 장식 예정

롯데백화점이 연말 시즌을 맞아 롯데백화점을 무대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쇼타임’을 펼친다.

올해는 내달 1일부터 롯데백화점 전점을 시작으로 롯데아울렛까지 순차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야경 명소에 도전한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테마는 ‘윈더풀 쇼타임’으로, 본점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더욱 직관적이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테마명이 ‘윈더풀 쇼타임’인 만큼 고객들이 공연에서 느끼는 설렘과 즐거움 등의 감정을 롯데백화점에서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먼저, 본점 앞 거리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씨어터 소공’으로 탈바꿈한다. 거리와 출입구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장식해 마치 1900년대 브로드웨

이 등의 뮤지컬 극장가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3개의 대형 쇼윈도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인 윤여준, 빠키, 그레이스 엘우드와 협업해, 재즈부터 서커스까지 다양한 공연의 장면들이 연상되도록 연출한다. 이 외에도 본관 입구에는 티켓 부스 포토존을 조성해, 고객들이 공연 시작 전 느끼는 설렘을 가득 안고 롯데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외벽 라이팅 쇼를 진행해, 건너편에서도 롯데백화점을 무대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쇼타임’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라이팅 쇼는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30분 단위로 약 2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플라자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대표하는 화장품, 디저트, 주얼리, 와인 등이 주인공이 되어 백화점을 무대로 공연을 펼치는 영상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4주간 대규모 식품 할인전

‘홈플러스 메가 푸드 위크’ 전개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 쇼핑 축제가 열리는 ‘할인의 달’ 11월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주간 대규모 식품 할인전 ‘홈플러스 메가 푸드 위크’를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홈플러스만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해 먹거리를 ‘메가’급 할인가에 판매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월 역대급 메가 3일 특가’를 진행해 주요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한우데이(11월 1일)를 맞아해 국내산 고기를 할인하는 ‘한우 한돈 메가 페스타’를 진행한다. 국내산 돼지고기와 양념육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가에 제공한다.

김장철 물가 안정에도 앞장선다. 배추는 홈플러스 가격 투자에 농축산물 20% 할인쿠폰까지 적용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1통을 3992원에 판다.

행사 첫 주말인 오는 1~3일에는



모델들이 30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메가 푸드 위크’ 행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

‘11월 역대급 메가 3일 특가’를 통해 ‘보덕돼(보리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목심(100g)’을 마트에서 단돈 990원, 계란(대란, 30구) 2판을 8990원에 선보인다.

내달 13일까지 ‘빼빼로데이’와 ‘수능’ 맞이 행사도 전개한다. 빼빼로, 포키 등 막대과자 30여 종은 1360원부터 다양한 가격대로 내놓고, ‘페레로로쉐’ 7종은 10% 할인한다. 빼빼로데이와 수능 행사상품 2만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